



인간은 어떻게 살고 죽을 것인가

정기연 전 영암 신북초등학교 교장

칼럼

나이가 71세를 망 팔이라 하고 나이 81세를 망구라 한다. 80세와 90세를 바라보는 나이는 사람이 태어나서 살 만큼 살고 이제 죽을 나이에 임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노령화 시대에서 사는 우리는 70~80세를 그렇게 고령으로 보지 않는다. 인생은 새벽하늘 별처럼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둘 사라지고 있다.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소식이 없다가 소식이 갑자기 오르면 죽었다는 알림이다.

나이가 들면 육체적으로는 죽음의 신호가 부분적으로 기능별로 오고 있다. 청력이 감퇴하여 소리가 잘 들리지 않으며 시력이 감퇴하여 글을 읽기 힘들어지며 이가 빠져서 의치를 끼고 음식을 먹는다. 정력은 감퇴하여 남녀 관계가 멀어졌다. 근육이 부분적으로 굳어져 젊은 시절에 하든 운동을 할 수 없으며 거동이 불편해진다. 이러한 현상을 우리의 신체가 부분적으로 점진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증조며 신호다. 사람이 따라 먼저 나타나고 나중에 나타날 뿐이며 죽어가고 있다. 정신적으로는 나이가 들면 건망증이 생기며 심하면 불치병인 치매로 연결된다.

인간이 죽으면 시체는 죽은자의 친지 가족들이 화장이나 매장으로 치운다. 화장이 절차가 간단하게 진행된다. 관이 전기화로 속으로 내려가면 고인의 이름 밑에 '소각 중'이라는 문자 등이 켜지고, 40분쯤 지나니까 '소각 완료', 또 10분쯤 지나니까 '냉각 중'이라는 글자가 켜졌다. 10년쯤 전에는 소각에서 냉각까지 100분 정도 걸렸는데, 이제는 50분으로 줄었다. '냉각 완료'되면 흰 뱃가루가 줄줄이 컨베이어 벨트에 실려서 나오는데, 성인 한 사람 분이 한 되 반 정도였다. 직원이 뱃가루를 봉투에 담아서 유족들에게 하나씩 나누어 주었다. 유족들은 미리 준비한 용기에 뱃가루를 담아서 목에 걸고 돌아갔다.

뱃가루를 들여다보니까, '일상 생활하듯이, 세수하고 면도하듯이, 그렇게

가볍게 죽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므로 죽을 때는 돈 들이지 말고 죽자, 건강보험 재정 축내지 말고 죽자, 주변 사람을 힘들게 하지 말고 가자, 질척거리지 말고 가자, 지저분한 것들 남기지 말고 가자, 빌려 온 것 있으면 다 갚고 가자, 남은 것 있으면 다 주고 가자, 입던 옷 깨끗이 빨아 입고 가자, 관은 중저가가 좋겠지, 가면서 사람 불러 모으지 말자, 빈소에서는 고스톱을 금한다고 미리 말해 두자.

세상에는 없는 게 3가지가 있는데~ 1. 정답이 없다. 2. 비밀이 없다. 3. 공짜가 없다. 죽음에 대해 분명히 알고 있는 것 3가지가 있는데~ 1. 사람은 분명히 죽는다. 2. 나 혼자서 죽는다. 3.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다. 그리고 죽음에 대해 모르는 것 3가지 있다. 1. 언제 죽을지 모른다. 2. 어디서 죽을지 모른다. 3. 어떻게 죽을지 모른다. 그래서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모든 사람이 태어나는 방법은 거의 비슷하지만, 그러나 죽는 방법은 천차만별하다. 그래서 인간의 평가는 태어나는 것보다 죽는 것으로 결정된다. 내가 세상에 올 때 나는 울었고, 내 주위의 모든 이들은 웃었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나갈 때 모든 사람이 아쉬워 우는 가운데 나는 웃으며 훌훌히 떠나가자. 인간은 태어날 때 흙으로 만들어진 육체와 하늘님이 주신 영혼이 합성하여 인간 생체로 살다가 죽으면 다시 육체는 흙으로 가고 영혼은 승천하여 영겁의 세계로 간다고 종교에서는 말하고 있지만, 영혼이 있는지 없는지는 확실한 증거를 못 하고 있다.

그러나 인간은 영과 혼이 있고 일반동물은 영은 없고 생체체를 작동시키는 혼이 있다고 한다. 인간은 죽으면 유체도 영혼도 모두 사라진다. 인간의 생노병사(生老病死)는 모두가 겪어야 할 과정이므로 미리 준비하며 살다가 삶에 보람을 느끼면서 떠났으면 한다.

별집을 발견했을 땐 119에 신고하세요

이치원 담양소방서 119구조대장



주택가는 물론 학교, 식당 등 일대에 별집이 증가하면서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여름부터 늦가을까지는 말벌들이 왕성하게 활동하는 시기이다. 기온이 본격적으로 높아지는 7월부터 왕성해지기 시작해 9월에는 그 활동이 가장 커진다. 시민들의 별집 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이유이다.

담양소방서에 따르면 담양 지역 올해 별집제거 출동 건수가 1,191건에 달한다고 한다. 별집제거는 개인이 하기 어렵기에 119에 신고를 꼭 해주기를 부탁드리는 바이다. 별집제거를 위해 분무형 살충제 등에 불을 붙이는 등의 행동을 하게되면 자칫 화재로 번질 수 있으며 화상을 입거나 벌에 쏘일 수 있다.

벌 쏘임 예방법으로는 벌을 자극하는 향수, 화장품, 스프레이 종류는 자제하는 것이 좋다. 또 어두운색 계열의 옷에 공격성을 보이므로 흰색 계열의 옷을 착용하고 소매가 긴 옷을 입어 팔·다리 노출 최소화해야 한다. 벌집 발견 시에는 자세를 낮춰 천천히 다른 장소로 이동하고 벌집을 접촉하였을 때는 머리부위를 감싸고 신속하게 20m 이상 이탈해야 한다. 벌에 쏘였을 때에는 신용카드 등 딱딱한 방법으로 신속히 벌집을 제거하고 깨끗한 물로 씻은 후 얼음찜질하는 것이 좋다.

벌에 쏘임 위험이 특히 높은 시기인 만큼 벌집을 발견하면 절대로 건드리지 말고 안전을 확보한 뒤 119에 신고하도록 하자.

'보이스피싱' 예방, 기본에 충실하자

박대성 광양경찰서 청문감사인권관실 경사



세상에 억울하고 딱한 사연이 어디 한 둘 이겠느냐 만든 보이스피싱 피해자 만큼 억울하고 딱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 싶다. 게다가 보이스피싱을 당한 피해자들 대부분이 경력이 단절된 주부들이거나 평생 모은 썬지돈을 빼앗긴 노인들이 대다수 인지라 그 사연에 역장이 무너지고 안타까운 마음이 반복된다.

최근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이 수법이 날로 진화하고 있다. 예전에 보이스피싱에 주로 이용되는 전화번호가 070(인터넷전화), 02(지역번호), 010(휴대전화) 정도였다면 최근에는 이를 넘어서 금융감독원 콜센터 번호까지 등장했다. 사람들이 의심 없이 전화를 받도록 번호를 위장한 것이다.

금융감독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발신번호를 위장한 수법을 사용한 피해 건수가 2만2051건에 달하며 피해액만 1037억원에 이른다. 여기에 더해 사기범들의 수법이 더욱 과감해지기까지 했다. 보이스피싱을 단속하는 불법금융대응단 직원의 개인 휴대전화 번호까지 위장해 범죄에 이용한 것이다.

하지만 이처럼 날로 지능화되고 과감해지는 보이스피싱 수법을 예방하는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어쩌면 아주 간단하고 기본적인 대응책이라 할 수 있는데, 바로 전화를 바로 끊어 버리는 것이다. 관공서, 수사기관, 금융기관 등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개인의 금융거래 내역이나 인적사항 등을 전화상으로 확인하지 않는다.

계좌가 대출사기에 이용되었으니 사기사건에 연루되지 않겠다는 사실을 증명하려면 지정된 계좌로 돈을 보내야 한다거나, 본인 소유 통장을 사기범들이 이용하려고 있으니 예금을 다른 계좌로 옮겨놓아야 안전하다는 식의 전화를 받게 되면 주저하지 말고 전화를 끊어버리면 되는 것이다.

보이스피싱을 완벽하게 예방하는 방법은 이와 같은 사기 전화를 받게 되면 일체의 대응을 하지 않는 것이다. 보이스피싱 수법이 날마다 지능화되고 교묘해지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 모두가 기본에 충실하면 이를 예방할 수 있다.

호남신문 i-honam.com		대표전화 (062) 229-6000 광주 서구 운천로 213 스카이맨드 309호	
회장·발행인·편집인 김 평 호 편집국장 직무대리 서 선 옥			
동부취재본부		전남 순천시 충효로 63 가동 2호 (061) 905-2011	
서울취재본부		서울시 노원구 공릉로 62가길 16-1 (02) 2238-0003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직통 (062) 228-2580 팩스 (062) 222-5547	
등록번호 광주가 00021 (연간) / 1946년 4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 쇄 (주)남도프린테크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즐거운 한가위 고향집에 주택용 소방시설로 안전을 선물하세요

김선옥 무안소방서 예방안전과장

무더운 여름을 지나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지쳤을 우리의 마음을 달래주는 추석이 다가오고 있다. 모두가 행복한 추석을 보내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안타깝게도 매년 추석 연휴에도 적지 않은 화재가 발생하고 있다.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주택 화재 발생률은 약 18%인 반면 화재 사망자의 47%가 주택에서 나왔다. 주택화재는 건수 대비 인명피해가 많아 즐거운 추석 연휴 화재를 미리 예방하고 신속히 대처할 방법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그렇다면 주택 화재를 예방하고 초기에 화재 발생 사실을 알려주는 소방시설은 무엇이 있을까? 바로 '주택용 소방시설'이다.

즐겁고 안전한 추석 명절을 보내기 위한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말한다. 소화기는 화재 초기 올바른 사용법으로 화점에 분사하면 소방차 한 대의 위력에 맞먹을 만큼 화재진압에 탁월한 성능을 보여준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화재 발생 시 연기를 감지해 내장된 전원으로 음향 장치가 작동되어 화재 발생 사실을 알리는 역할을 한다.



'소화기 1대, 감지기 1개는 생명을 9한다'라는 말이 있다. 그만큼 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를 초기에 진압하거나 연소 확대를 막아 우리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간단하고 효과적인 방법이다.

실제로 올해 1월 무안읍 등에서 주택용 소방시설인 단독경보형 감지기가 작동하여 주민이 대피하고 신속히 소방서에서 출동해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소방서에선 기초생활수급자와 독거노인 등 화재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을 지속해서 보급하고 소방시설 사용법과 화재 예방 안전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추

석을 앞두고 시민을 대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캠페인을 벌이는 등 주택 화재를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다.

다가오는 추석 연휴를 안전하게 보내기 위해선 소방서만의 화재 예방 활동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즐거운 한가위 주택용 소방시설로 고향집에 안전을 선물하여 화재예방하는 명절이 되길 바란다.

호남신문 후원 및 회원제 시행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저희가 개척하겠습니다. 지금보다 건전해질 수만 있다면 어렵지만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압력이나 간섭에서도 자유롭기 위해서라면 당장의 손익에 급급해 하지 않겠습니다.

호남신문의 후원 및 회원제를 시행합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회원 여러분의 피와 땀이 배인 후원금을 소중히 접수하겠습니다. 후원금으로 광고의 일부를 대체해 광고주의 유무형 압력 등 편집권 침해로부터 탈피해 자유로운 제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및 회원제의 시행으로 왜곡되지 않은 정론을 펼치는데 지역언론의 선봉장 역할을 자임합니다.

전국 일간지 최초로 복지면을 할애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권익향상에 힘쓰고 있는 호남신문은 후원회원제를 통해 보다 더 굳건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 획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겠습니까마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보면 작은 내가 모여서 강을 이루듯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점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회원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차차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호남신문의 작지만 큰 변화의 몸부림에 시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